선전일꾼, 대선 승리의 전위부대

문화특집 민족민주운동 진영의 대선 문예투쟁 사업 기조와 전망

대중이 주인되는 진보적 자주문예의 검증 이뤄내야

기초 문예단위가 주체적 관점으로 투쟁형태 논의

Ⅰ. 들어가며

대선이 2개월 여 앞으로 다가왔다. 국민의 힘으로 정권교체를 이루어 낼 수 있는 호기가 87년에 이어 또 다시 주어진 것이다.

우리는 기억한다.

6월항쟁과 7, 8월 노동자대투쟁의 성과물을 지배권력에 다시 넘겨주고 패배감과 허무주의에 빠져들었던 9년 전 추운 겨울을.

하지만 그런 패배감과 허무주의 속에서도 우리 민중들은 작은 부분부터 시작해 민족민주운동을 발전시켰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가지 여건은 오히려 87년보다 좋다고 할 수 있다. 또한 87년 대선의 교훈이 우리에겐 있다. 분열은 지는 길이고 단결만이 우리의 삶 길이라는 것을 깨닫기 위한 시행착오는 한번으로 족한 것이다. 민족민주운동세력의 또 한번의 실수는 국민들에게 용서받지 못할 것이다.

이러한 민족민주운동의 사활을 건 대선투쟁은 이미 국민들의 생활에서, 여의도 MBC시옷의 공정방송 쟁취의 함성에서, 전교조 해직선생님들의 복직투쟁에서 시작되고 있다.

문예라는 무기를 통해 자신의 삶을 안식하고 변혁운동에 복무하는 청년학생 문예일꾼들 또한 기간의 문예투쟁의 성과물을 통해 축적한 문예의 힘을 모을 때이다.

이 글은 대선문예투쟁(이하 대선문투)을 앞둔 청년학생 문예운동의 대선문투기조를 제기하고, 한빛문화회의 준비상황을 통해 그것이 실현되는 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Ⅱ. 올바른 대선문예투쟁을 위하여

1. 대선문투의 의의와 원칙

이전시기 우리 선배들은 문예를 통해 대중 속에 뿌리내리기 시작했다.

이러한 면을 고려하고 대선문투가 문예일꾼에게 주는 의의를 살펴보자.

첫째, 대선문투는 자주문예의 질적 전환기를 이끌어낼 것이다.

대중 속에 뿌리내리기 시작한 자주문예는 대선속에서 창작실천과 검증을 통해 확산 될 것이며 아직까지 자주문예가 해명하지 못한 조직, 사상, 대중운동 문제가 이번 대선문투를 통해 해명될 것이다.

대선이 전국적 관점이 요구되는 특성을 가지긴 하지만, 각 단위가 자신의 지역이나 학교단위를 책임진다는 자세를 견지해야 한다. 이전의 문예투쟁이 단위 근거지 중심의 투쟁이 되지 못해 겪었던 오류는 극복되어야 한다.

두번째 원칙은 모든 것을 각 단위의 주체적 관점으로 보아야 한다는 점이다.

단위 주체역량과 여건을 고려치 않고 상층의 투쟁지침을 그대로 받아안고 벌이는 투쟁은 어떠한 성과도 남기지 못할 것이다.

세번째로 광간체계를 확대하고 강화시켜야 한다.

대선문투가 투쟁의 계기가 마련되는 투쟁이라기 보다는 계기를 만들어가야 하는 투쟁이라고 했을 때 광간체계에서 일상적 창작투쟁과 연구성과를 만들어가는 것은 대선문투에서 중요한 요건이다. 그렇지 않았을 때 우리는 정작 중요한 시기에 발이 묶이고 말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이와 더불어 비상시기에 대비한 일상시기의 안정적 조직화가 요구된다. 정세의 수위가 높아질 11월말 부터 문예투쟁의 성패는 일상시기의 안정된 조직화에 달려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상에서 간단히 대선투투의 의의와 원칙을 살펴보았다. 이외에도 각 단위의 여건에 적합한 원칙이 있을 수 있다. 언제나 주체적 관점에 서는 것이 중요하다.

2. 대선문투의 조직체계와 투쟁형태

대선문투의 조직체계는 각 단위의 일상적 조직체계와 창작단형태의 역량이 뛰어난 인자로 구성된, 두 가지가 모두 필요하다.

그것은 일상적 조직체계는 각 단위가 투쟁의 성과물을 받아안고 역량을 강화하는데 필요하다. 또 창작단의 형태는 대중의 이해와 요구가 질높은 창작물의 생산을 요구하기 때문이다. 물론 중심은 일상체계에 두어야 한다.

한편 문예교사들의 교양사업이 조직체계 속에 포함되어야 한다.

문화이 현실의 빈영이고 생활의 교과서인데, 복잡한 우리의 현실에서 올바른 형상과제를 내오고 정세관단을 하는 것이 대선국면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투쟁형태 또한 각 단위의 여건에 맞는 창조적인 고민이 필요하다. 또한 기존의 투쟁형태를 평가하는 속에서 혁신, 계승의 관점이 요구된다.

3. 단위의 조직화 방안

한빛문화회의 일상 조직체계는 시분과, 소설분과, 연구분과, 동화분과와 교육, 선전부가 있다. 이작까지 한빛문화회 안에서는 구체적이 대선문투를 조직하지 못했다. 단지 비상조직체계로서 '대선문예투쟁 특별위원회(가칭)'준비위가 구성되어 있다. 이 조직은 크게 교양국과 창작국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교양국은 정세를 교양하고 형상과제를 내오고 성과물을 보전, 계승시키는 일을 맡는다. 그리고 창작국은 일상적 창작투쟁을 하고, 비상시기에 창작단으로 전화하게 된다.

투쟁형태도 좀 더 논의를 해보아야 하겠지만, 일상적으로 확우들에게 문예의 본성을 보여주는 형태를 고민하고 있다.

기령 11월말부터 매주 1회씩 시 낭송회를 하는 것같은 형태를 고민하고 있다.

Ⅲ. 나오며

우리는 아주 먼 길을 걸어왔다.

이제 그 길은 얼마 남지 않았다. 민중들은 뻔히 지는 싸움에 나서지 않는다. 이기는 싸움일 때만이 싸움에 나서는 것이다. 낙관적이긴 하지만, 아직도 패배적으로 허무적으로 이번 대선을 바라보아서는 안 된다. 또한 이기는 싸움을 만드는 것도 우리 하나 하나 임을 명심해야 한다.

거창하게 시작한 것에 비해 내용성은 부족한 듯이 느껴진다. 하지만 올바른 이론적 틀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현실에서 실천해 나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

마지막으로 노신의 글을 되새기며 글을 마칩니 한다.

"희망이란 본래 있다고도 할 수 없고 없다고도 할 수 없다.

그것은 마치 땅위의 길과 같은 것이다. 본래 땅위에는 길이 없었다. 걸어가는 사람이 많아지면 그것이 곧 길이되는 것이다"

강 영 훈
〈국문·3〉

▲한빛문화회의 활동 사업중 하나인 시낭송회

미술평 박재호교수 제3회 개인전을 보고

형상과 자유에 대한 향수

같은 대학에 몸담고 있는 필자는 박재호교수와는 깊은 교분을 지켜왔다. 가다려지던 그의 개인전에 동참하는 기쁨 또한 큰 것이었다.

인간 박재호는 따뜻한 인간미를 가진 균형잡힌 정신의 소유자다.

그가 있는 주변은 어김없이 훈훈하고 술이라도 한잔 들어갈 양이면 급류처럼 쏟아놓는 그의 달변이 좌중을 이끌어가는 정열가.

그는 그의 모든 주변을 성실하게 즐기려 한다. 술을 사랑하고, 제자들을 아끼며, 삶과 어울리고 인생을 마디마디 음미하며 살고 있는 것 같다.

그러나 그가 그림작업 속에 빠져들면 세상과는 문을 닫고 그 자유의 세계를 끝없이 유영한다.

그의 그림은 사색깊은 세계이다. 그가 취하는 그림의 형식은 추상쪽이지만 그러나 구상성을 배재하지 않는다. 그의 그림은 마치 자연을 정신속에 승화시킨 기억의 회화같다. 유화물감을 쓰고 있는 데도 끈끈한 기름기를 전혀 느낄 수 없고 가을들판의 마른풀처럼 까칠까칠하고 드라이한 느낌을 준다. 그의 그림 바탕은 어김없이 돌이 가는 모시판에 물감을 마르게 올린듯한 분위기를 갖고 있다.

나는 그같은 그의 그림 공간을 기억의 공간이라고 이름 붙이고 싶다. 그 아늑하고 깊숙한 그림판은 모든 기억을 되살릴듯 포용력 있게 우리를 끌어 들인다.

박재호는 그 정신의 공간에 기억된 형상을 속도빠른 붓터로, 뭉겐뭉한 흔적으로, 때로 붓을 던지듯이, 아니면 물감덩이를 손가락으로 문지르듯이 조형화해낸다. 그것들은 활활나르는 학일수도, 깊은 산속 외롭게 서있는 장승일수도 아니면 구름이거나, 도눞은 바위덩어리, 산새, 개천일수도 있다.

어찌다가 집이나, 화상, 별로초 같은것, 인생의 알수없음을 나타 내는 듯한 X형자도 등장한다. 부정인지 의문인지 모를 X자말이다.

그는 대상을 구체적으로 그리는 것이 아니라 은유적으로 상징적으로 던져 넣음으로써 보는 이의 자유도 한껏 유도해 낸다.

기억, 인상, 흔적을 화폭에 옮기는 것은 기억의 되살림을 일깨워 주는것 같다. 그는 대상을 주인으로 하여, 그리는 자가 수동적인 자리에 서는 것이 아니라, 자기속의 기억을 자의적으로 회폭에 투화함으로써 오히려 화면이 수동적인 입장에 놓이게 한다.

이런 방법으로 그는 그리는 과정의 자유를 확보하고 그리는자의 자유를 만끽하려 하는 것이다. 그래서 그의 그림은 주체적이며 정신성이 두드러진다.

누군가 세상에서 가장 자유로운것은 정신이라고 했던가. 그의 회화정신은 화폭속에서의 완전한 자유, 그것에 있다. 여사를 자유의 완성이라고 본다면 그는 그림을 통하여 자유의 완성을 반추하고 있는것 같다.

그가 서양식 형식과 매체를 쓰고 있는 데도 동양적 사유공간을 느끼게 하는 것은 이같은 그의 능동성에 연유한다. 그의 그림에서 우리가 자유를 느끼고, 한국적 서정을 느끼는 것도 그 때문이다.

정신세계가 비가시적인것 같지만 가장 확실한 실재로 다가오는것도 사유하는 그의 그림 때문이다.

잡다한 문명에 시달린 우리를 일탈시켜 정신적 향수의 고향으로 이끌어 가는 것이 그의 그림의 요체다. 우리가 그의 그림앞에서 여유와 정밀한 고독을 느끼는 것도 그때문이 아닐까?

이 석 우
〈문리대교수·사학〉

캠퍼스 문화인 비판과 격려, 작곡과 연주 함께 하는 부부작곡가

—가을음악제 참가자 최은숙(대학원 석사4기·작곡) 부부를 만나

오늘 대학원 학술제의 하나인 가을음악제에서 발표될 Computer Music곡 '…?'를 작곡한 최은숙(대학원 석사4기·작곡)씨와 남편이자 그 곡의 연주자인 권오윤(대학원 석사2기·작곡)씨를 만나 보았다.

음악가족의 집안에서 6살 때처음 피아노 건반을 두드리기 시작한 최씨는 서울예고를 졸업하고 대학에 오면서, 피아노처럼 계속 배우고 연주하는 것을 되풀이 하는 것보다 자기가 생각한 것을 직접 음으로 악보에 그려내는 작곡에 매력을 느낀 것이 지금의 그를 있게 한 배경이라고 설명한다.

남자친구 예민한 성격을 지닌 최씨는, 작곡이 '철저한 자신과의 싸움'이며 정답이 없는 화문임을 이야기하는 남편의 말을 인정하면서, 곡을 쓸 당시 자기가 좋아서 썼다고 말하면 반박할 여지가 없는 점을 지적하면서 이런 생각이 자칫하면 이기적으로 흘러 갈 수 있다는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는다.

Computer Music은 컴퓨터와 신디싸이저를 기계장치로 연결하여 여러가지 악기소리와 음향을 내는 것으로 오케스트라 연주까지도 가능하다. 현재 우리나라에도 가요동의 실제 음악 활동에 많이 이용되고 있으나 이른과 실기를 전문적으로 배울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어 있지 못하다.

권씨는 이러한 상황에 대해 직접 Computer Music을 배우기 위해 4년 전 4백 여 만원을 들여 컴퓨터와 신디싸이저 등의 최소 장비를 구입했지만 "아직도 그 가능의 30~40%정도 밖에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발전 가능성을 고려할 때 체계적 연구가 필요하다고 말한다.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겨야 한 편의 곡 만들 수 있어요"

또한 작곡을 하는 사람들에 있어서 Computer Music의 장비들은, 곡을 쓰면서 그 자리에서 원하는 악기의 소리로 그 음을 듣는 것을 가능하게해 작업에 많은 도움을 준다. 하지만 장비구입비용이 비싸고 컴퓨터에 숙달되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의 난점도 있다.

최씨는 대학 졸업 연주회때 9명이 연주하는 실내악곡을 만들어 컴퓨터로 편집, 연주했던 당시를 회상하면서 컴퓨터는 정확한 음을 낼 뿐 감정이 들어 있지 않아 기계적인 맛을 없앨 수 없지만 사람의 연주는 같은 음을 짤어도 사람의 감정에 따라 다른 음색이 나타난다며 인간의 예술성을 높이 평했다.

94년 쯤에 남편과 함께 미국으로 유학을 떠날 계획이라는 그는 "서로가 음악이 좋아서 하는 만큼 넓은 곳에서 한계를 느낄 때까지 배우며 음악생활을 하겠다"며 그들의 포부를 밝히기도 했다.

꽤 열심히 생활했다고 느꼈던 대학 시절이 대학원을 마치는 지금 마냥 아쉽게만 느껴진다는 그는 후배들에게 편협된 바둠이 아닌 넓고 다양한 배움의 길을 찾아가길 당부하며 말을 맺었다.

〈김일형 記者〉

▲작업실에서 부부가 함께 한 모습

쾌적하고 생산적인 산업사회 창조

GoldStar

'世界10大 産業用 電氣·電子 綜合企業'을 目標로
尖端技術 領域을 넓혀가고 있습니다
—金星産電

국내 최대의 산업용 전기·전자회사, 금성산전—
그 밑바탕에 종합기술력이 있습니다.

국내 산업용 전기·전자 전분야—
금성산전이 있습니다.
금성산전은 공장자동화분야,
전기·전력분야, 빌딩자동화분야,
환경·교통분야 등에 걸친 종합 기술력을
바탕으로 우리의 산업 기술 경쟁력을
높여왔습니다.
전문 기술인력과 끊임없는 연구개발로
첨단 산업용 전기·전자 분야를
앞서 개척해가는 금성산전—
지금 세계의 기술과 어깨를 겨루고 있습니다.

金星産電部門
● 金星産電 ● 金星計電
● 金星機電 ● 金星아니웰